



4면

'성평등전주' 개관 두 돌

전주매일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음 11월 3일) 제29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북 민심잡기 강행군 '마침표'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2박 3일 '메타버스 전북투어' 마쳐
전국 선거운동서 전북만 따로 시간 할애 방문 '이례적'
한옥마을 거리 연설부터 테크노파크 국민반상회까지
일정 소화하며 지지 호소... 정세균 전 총리와도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도 일대를 돌며,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전북 민심잡기 강행군에 마침표를 찍었다.
영호남 지역구에서 소외돼 온 호남 그 중에서도 유독 중앙정치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던 전북 지역에 애정을 쏟았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 선거운동에서 전북 지역만 따로 시간을 할애해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매주 진행되고 있는 지역 순회 선거운동 '메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지난 주말 행선지는 전북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주·익산·군산·김제·임실·남원·정읍·완주·진안·장수·무주 등 전북 지역을 살살히 훑었다.
이재명 후보는 수 차례 거리 연설로 지지 호소했다.

그는 먼저, 지난 3일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서 즉석 연설을 통해 '비록 제 신념에 부합해서 주장하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이 이해 못하고 동의 못하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이어, 4일 방문한 군산 공설시장에서는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라고 가족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 출신의 미천함은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며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행사할 것이고,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냐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주인 뜻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정읍 생고을시장에서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가리며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며 "군사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권정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녀갔던 정읍 성광고화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예배도 드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메타버스 내내 전북지역의 주력 산업과 숙원 과제를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들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4일에는 김제의 새만금 사업지를 찾아 "전북 최대현안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 이재명은 원래 목은 일 처리하는 전문가라 '앞으로 공공의대도 공공의료원도 확보해야 하고, 원래 정부가 국민께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 것을 민주당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일에는 완주군의 완주수소충전소 및 수소에너지 연구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탄소 감축 목표 하향" 주장을 비판하며, "수소 에너지 전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서 국민반상회를 열고 "산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제가 주장하는 에너지 고 속도론이 전국 곳곳에서 태양 풍력 에너지를 생산해 쉽게 팔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유력 정치인이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만났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주 종로회관에서 정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정읍시 생고을시장을 방문해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만찬 회동 직전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을 통해 이 후보가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5일 오후 애초 일정에 없던 진안군 인삼상설시장, 장수군 전통시장 무주군 식당 방문 일정을 추가하며, 전북 내에서 개발 소외지역으로 여겨지는 '무진장(무주·진안·장수) 지역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무주어족에서 지역민들과의 저녁 식사를 끝으로, 이번 2박 3일 전북 메타버스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9' 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8조9,3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예산 8조9368억원

도, 예산 9조원 시대 향한 동력 얻어... 전년보다 6693억 ↑
산업체질 혁신 예산 대거 확보... 신산업지도 구축 '탄력'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이 8조 9,000억 원을 돌파하며, 9조원, 10조원 시대를 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예산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미래형 자동차와 문화관광, 새만금 사업, 복지 등 전 부문에서 예산을 고르게 확보하며, 코로나 위기를 넘어 생태문명시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탄소·수소·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성장산업의 선점과 융복합화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체질 혁신의 동력이 될 실속 있는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전북도가 새로이 그려가고 있는 신산업지도 구축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8조9,3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이원택 의원 등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2022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북도는 '코로나 위기 이전의 일

상을 되찾는 회복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혁신 생태문명 시대로의 성장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그간 차근차근 준비해온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융복합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역사와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여행체험 1번지 조성 ▲글로벌 물류중심지·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안전한 일상회복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도민의 안전한 일상과 편안한 생활은 도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챙기고 헤쳐나갈 일"이라며 "도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우선적으로 도민의 생활을 지키고 전북의 미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진안고원
JINAN GORYEON

진안군

진안홍삼스파

마이산 설경

구봉산 구름다리

부귀 메타세쿼이아 길

용담호 설경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진안고원의 겨울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NAVER 진안고원 D2M 마이산